

인권선언 웹진 5호

by 인권선언416 posted Aug 25, 201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웹진 5호



4 16인권선언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16인권선언 실행팀입니다.
 7월보다 뜨거운 8월입니다.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지난 7월 추진단 전체회의때 여러분이 주신 의견에 따라, 세월호와 인권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위한 연속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연속강좌는 풀뿌리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사람, 세월호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강좌입니다. 첫번째 강좌는 18일 화요일에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열리는 국가범죄에 관한 시선들 (이재승)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두번째로, 토론 기획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실행팀에서 추진단 여러분과 일대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화나 문자 등으로 실행팀과 연락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앞으로 진행하실 풀뿌리토론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실행팀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행팀 드림

연속강좌의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일시: 8월 18일(화)~9월 3일(목) 매주 화, 목 저녁 7시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 6층 강당(3호선 독립문역)
 8월 27일(목) 4강만 권화은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수강료: 회당 3천원(전체수강 1만 5천원) 현장납부 혹은 입금
 국민은행 001501-04-108201 김덕진(4.16인권선언)
 신청방법: <http://goo.gl/forms/JaNg7wx6ya> 응답해주세요~
 문의: 02-2285-0416 4.16연대

1강 8월 18일(화)	국가범죄에 관한 시선들	이재승 전교조평택지부지역위원장
2강 8월 20일(목)	세월호, 묻고 있는 진실	박문진 4.16가족협의회 변호사
3강 8월 25일(화)	세월호와 사회적 고통,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박성실 고려대 보건정책관리대학원 교수
4강 8월 27일(목) 광화문광장	안전한 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김태진 4.16연대 상임준기위원
5강 9월 1일(화)	재난 시대의 혐오	윤희정 애경홀딩스 마케팅팀 연구원
6강 9월 3일(목)	인권의 동력, 연대	류영숙 인권이평단 '함' 연구실장

4.16인권선언 416ac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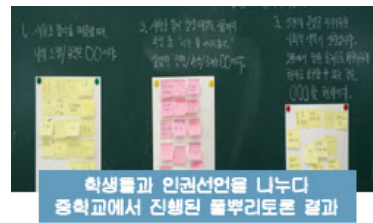
풀뿌리 토론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말하고 듣는 그 자체가 치유라는 느낌도 받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세월호에 대한 복기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엄마의 노란손수건 풀뿌리 토론에 참가하신 조영재님 후기



안녕하세요, 광진구에 거주중인 20대 끝머리를 달리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단체에 속하지 않고 꾸준히 혼자 활동해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영재님의 풀뿌리 토론 후기 마저 읽기>



함께 결의문 낭독할 때, 당신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7/11 전체회의 후기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 선언

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나을 사회를 만들기 위한 4. 16인권선언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유엔인권정책센터 홍승기님의 7/11 전체회의 후기 마저 읽기>

지난 7월 17일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풀뿌리 토론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416인권선언홈페이지의 풀뿌리토론페이지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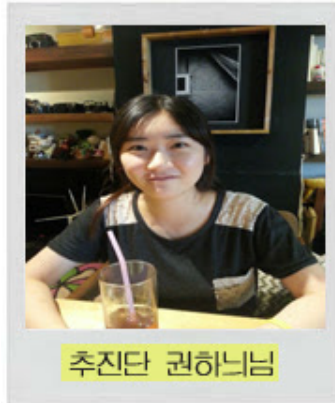
인권선언을 함께 하는 추진단이 궁금해! 추진단 릴레이 인터뷰 :)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수많은 휴면파일 중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꺼내서 보고 다시 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적인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과정이 사회를 바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해야하니까, 해야만 하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참여해야지 했는데 오히려 인권선언단은 너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정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토론하고싶다면: 읽을거리


▶ [4.16 인권서언 운동 8월 활동 경과 보고](#)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세월호 인권으로 말하다



우리동네 풀뿌리 토론 찾아보기

 antq0yibmk.jpg



TAG • #웹진



[웹진 5호]엄마의 노란손수건 풀뿌리 토론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Aug 17, 2015

안녕하세요. 광진구에 거주중인 20대 끝머리를 달리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단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활동해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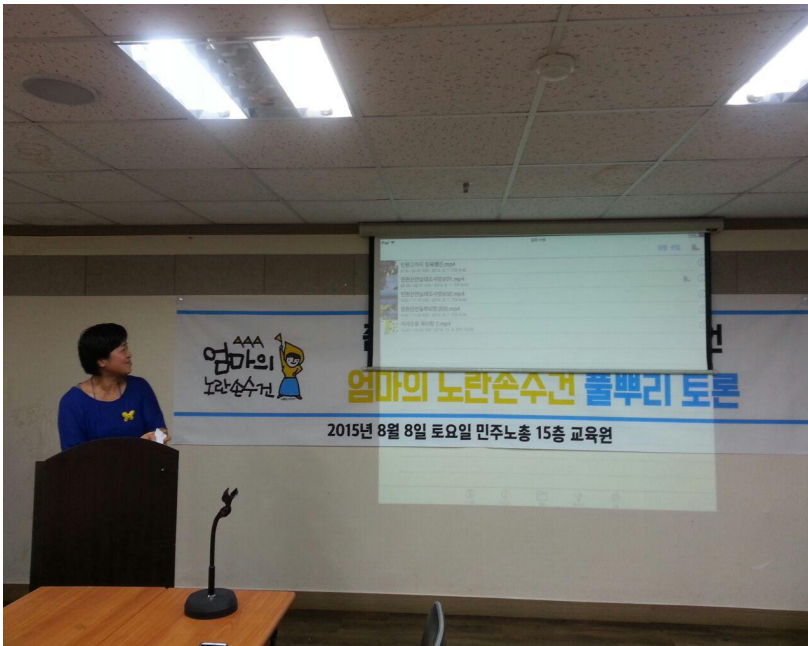
단체에 속하면 자각하지도 못한 채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에 경계하기 위해 홀로 활동했습니다.

홀몰이었지만, 사건을 정리하고 알리거나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작지만 꾸준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벤트를 위해 노란 배지를 엄마의노란손수건을 통해 구매했고,

그 과정에서 엽서를 신경써서 챙겨주신 어머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1주 만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참석을 권유받아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토론 참여를 결심한 이유는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500일이 다 되도록 이뤄낸 일은 없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단체에선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를 듣고 개인 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사실 후기를 작성하는 지금도 엄마의노란손수건도, 416연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후기를 작성하며 '저 같은 신입 초짜가 이런걸 써도 되나'하는 걱정이 듭니다만,

오히려 신입이기에 외부인의 시각을 알릴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복기와 치유의 시간

이런 모임을 다니지 않는 저로써는.

부당한 일들을 정리하고 글을 쓰고 SNS에 올리는 것 외에는 달리 알릴 방법이나 힘이 없었습니다.

집회나, 기네스 등재 등의 각종 행사를 참여하거나, 리본 공작소에서든, 피켓 시위 현장에서도.

대화보다는 해야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하다보니 그저 눈물 짓고, 슬퍼하고, 함께 외치는 것일 뿐 현장에서 토론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월호에 대해 토론해본 이날의 시간은.

각자 다른 슬픔과 문제점을 논의하며 시간이 계속 부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고,

몰랐거나, 저와는 다른 시각을 알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하고 듣는 그 자체가 치유라는 느낌도 받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세월호에 대한 복기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

가능하면 역지사지를 하려 노력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영상은 저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미수습자와 희생자 가족에 이어.

위로의 표현이라 생각했던 "그래도 살았으니 다행이다"라는 말이 생존자에게 그리도 건조한 상처가 되어 박힐 줄은 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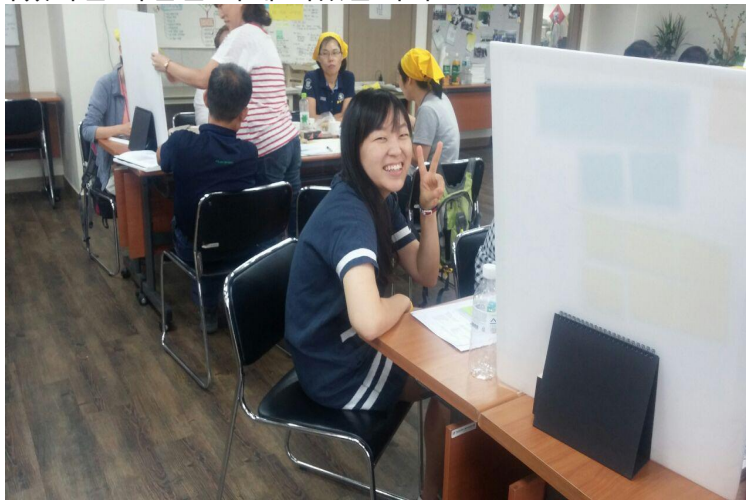
문을 열어놓고 샤워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교단에 서는 선생님. 무섭지만 참으며 구조 활동을 했다는 민간잠수부.

보상은 커녕 심각하게 외면당한 외국인 희생자 가족 등.

그동안 알고 있던 '미수습자, 학생, 교사, 일반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수 많은 시각과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각을 배려하는 영상 자료는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기에 나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개인활동은 여전히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미수습자 가족에 집중할 것입니다만, 더 다양한 시각으로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다시 보는 시간

오랜 시간을 들여 토론한 문제점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처음해봤습니다. 어렵고, 답답했습니다.

인권에 무지한 탓에 무슨 권리가 필요한지 몰라서.

결국 '말하고, 들을 권리' 정도로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론의 거짓 보도에 대한 분노와

정직하고 정확한 보도를 듣고 싶은 욕구와

증거를 조작하는 세력에 대한 징계와

조작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싶은 의문과

집회를 방해하고 도발한 과도한 차벽과 불법 진압 없이 떠들 자유와

가족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슬픔을 말하고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억울함과 분노를 고작 '말하고 들을 권리'라고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저의 무지를 자각하며 인권 교육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짜의 시각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는 500여명의 목숨을 댕가로 우리 사회에 두 개의 열매를 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장기간 굶은 이에게 바로 일반 음식을 주면 장기가 상한다는 의학적 발전을 준 것이었고, 둘째는 음식점이나 서점 같은 단위면적당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점을 고층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유민 아버님을 한달반의 단식에서도 장기 손상없이 회복시킬 수 있었고, 그 덕에 우리는 대부분의 서점과 식당을 건물 지하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전혀 받지 않은 저 같은 제 3자들이 가장 명확하게 받고 있는 피해는. 무려 1년 반이 되어가는 시점에서조차, 304명의 목숨을 댕가로 치룬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중인 공영우 잠수부나, 소외받은 영웅 김동수씨나 김홍경씨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분들의 처우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돌아올 세상에서 우리 사회는 영웅을 기대 할 수 없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세월호에 대해 반감을 갖는 분들에게도 돌아갈 명확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조차 없이 304명이나 죽인 이 참사를 욕하거나 관심두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현 시점에서 '인권'을 논하기엔 아직은 덜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약한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는 삶을 살려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약한자는 '미수습자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인 활동은 여전히 그 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을 논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답'이라 생각하기에. 평상시에 인권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토론에도 참석하고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멀리서 오셔서 뜻 깊은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주시면 어머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우려했던 단체에 대한 거부감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솔직 평범한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고 접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축하에 대한 보답은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TAG • #웹진, #플뿌리토론, #후기

150717_중학생들과 함께한 풀뿌리토론 결과

by 인권선언416 posted Jul 27, 2015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풀뿌리토론 개요>

* 언제_2015년 7월 17일 금요일

* 어디에서_중학교 2학년 교실

* 누구와_학생들 25명씩 두반

* 만약 기본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뿌리토론을 진행했다면 프로그램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차례대로 3가지 질문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포스트잇에 작성하고 칠판에 붙이며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영상자료)지식채널e

시간을 측정하는 특별한 기준/ 52인의 목소리/ 가만히 있으라는 말/ 현재 진행형/ 받은편지함(15000)/ 2014년4월16일

<풀뿌리토론 결과>

1.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세월호 참사를 어떤 감정으로 겪었나요? 각자의 경험을 표현한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슬픔'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외

안타까움, 화가 난다, 안 좋다, 배와 함께 가라앉기 시작하는 마음, 우울, 미안함, 불안, 두려움, 무서움, 괴로움, 황당함, 힘들다, 죄송함

2.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과 짚어본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건 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등 참여자들과 함께 찾은 장면이나 현상, 문제의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선장이 먼저 탈출한 것, 수학여행 가지 말라는 것, 구조했다는 거짓말, 아직도 리본 달고 다니냐는 말, 어묵이라는 비아냥, 구조대원들이 선원을 먼저 구조한 것, 인양, 정부대책, 정부, 박근혜

3. 풀뿌리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권리들을 제안했나요? 참여자들 각자가 적은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나 각자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3-1)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거나 공통적으로 말한 권리들은 무엇인가요?

'존중받을 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문제점을 말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학생들이 안전할 권리, 책임을 요구할 권리, 진상규명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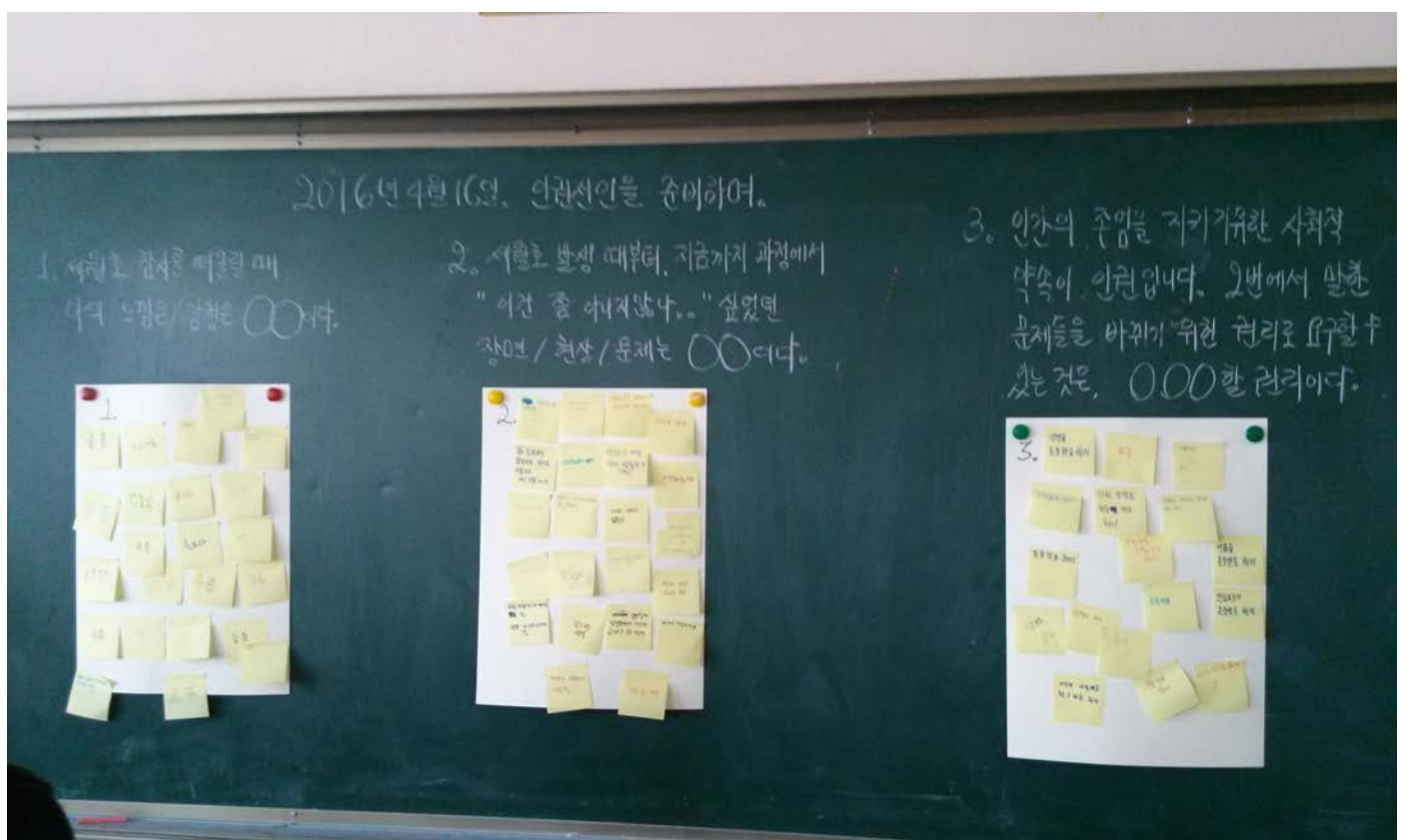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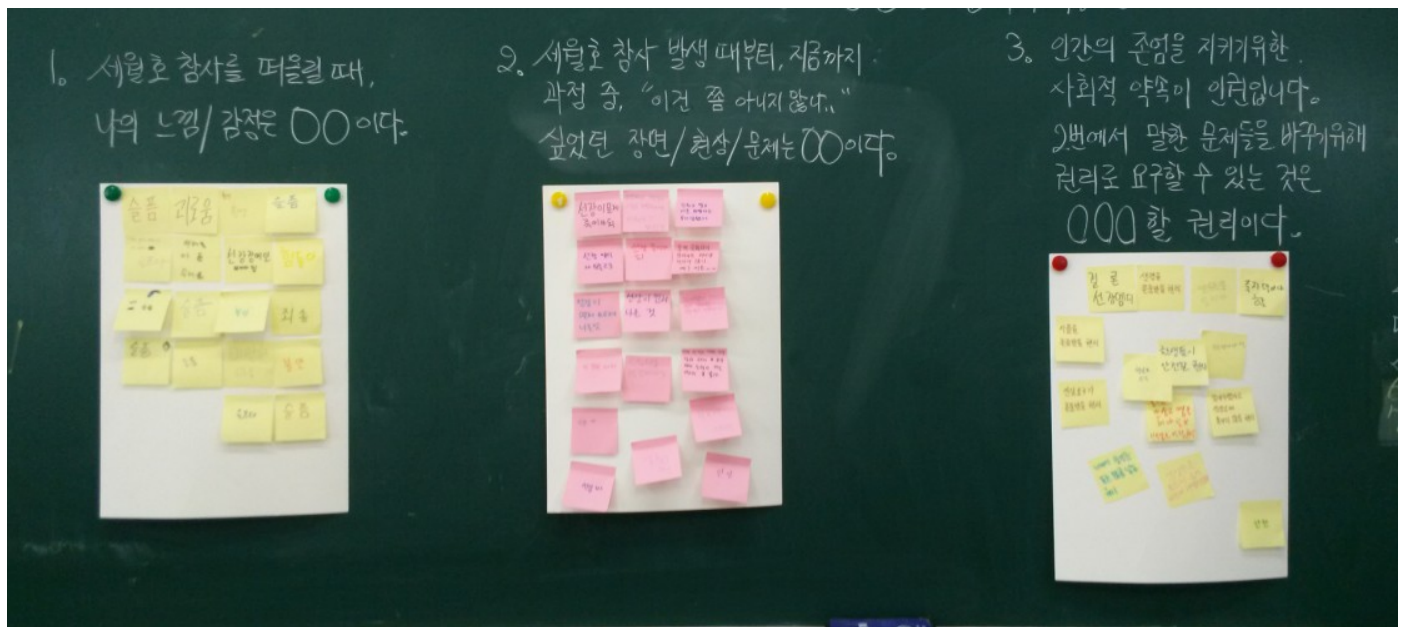
* 풀뿌리토론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학생들과 416에 대해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볍게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방학을 앞둔 시기이지만 학생들은 잠시나마 진지하게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 풀뿌리토론을 마친 후 함께 만든 권리풍선과 참여자들의 사진을 한 장 이상 보내주세요.

학생들에게 사진이나 결과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였습니

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결과물을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TAG • #풀뿌리토론, #후기

[웹진5호]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 후기

by 인권선언416 posted Aug 17, 2015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 후기

홍승기님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 선언하고, 나아가 더 안전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4.16인권선언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부문과 전국 지역사회에서 세월호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4.16인권선언 추진단으로 함께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전국의 4.16인권선언 추진위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이었음에도 전국에서 200명 이상이 모였다. 그 동안 이름만 알고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소통했던 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설레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든든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4.16인권선언과 추진단으로 활동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상기한 후 모둠별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개인이 세월호 참사 이후 느꼈던 감정,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참가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느꼈던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슬픔, 무기력함,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꼈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와 언론보도 등에 실망했다.

토론에서 한 가지 기억이 남는 말은, '편안했다'라는 말이었다. 다른 모둠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지만 이곳에서 만큼은 마음 편하게 자

신이 세월호 참사 이후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 위축되고 실망하지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참가자들이 있었다.

마지막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4.16인권선언 추진위원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에는 앞으로 추진위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또 추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있었다. 추진단 전체의 목소리가 수운회관에서 울려 퍼질 때 비장함과 일치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전체회의에 모인 모두가 앞으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인권선언 운동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분명 특정 집단만의 일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이런 대형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일부 집단의 불행이라고만 여기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들이 보장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변화의 시작에는 4.16인권선언 운동이 있다고 믿는다.

TAG •

#웹진, #1차전체회의, #후기

[웹진 5호] 추진단 인터뷰 14. 이주노조 활동가 박진우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Aug 17, 2015

[4.16인권선언 웹진 5호 인터뷰_박진우님]



자유롭게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박진우입니다. 올해 나이는 서른이고 노동조합에서 일한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방 가는건 좋아하고 술은 잘 못하지만 술자리 가는것도 좋아하죠. 개인기가 너무 없어서 성대모사라도 해보려고 노력중이고요. movement(운동)을 계속 하려면 sport(운동)을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2. 박진우님에게 4.16인권선언은 '기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대학생일 때 광주 5.18 순례단을 다녀오면서 밀란 쿤데라 라는 체코 작가가 이야기한 "역사는 망각된 사실에 대한 기억의 행위"라는 말이 인상깊게 남았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하면서 1년 넘게 노력해왔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기억속에서 아..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한 칸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때일수록 세월호와 관련된 글, 기사, 영상, 노래 등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때에 4.16인권선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주노동조합에서 일한다는 연유로 제안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함께 '기억'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세월호 참사 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이주민 희생자 가족 조사단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다른 언어로 인해 정보 접근 권리가 침해 됐고, 국적 차이로 인해서 가족의 장례를 치루는 것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16인권선언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이주민 희생자 가족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몇 달이 지난 이후부터 역시 이주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주민 유가족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국적이 다르기에 같은 유가족으로서의 권리도 다르게 부여되는구나 하는 점이었어요.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베트남 유가족분들을 만날 때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인 유가족 아픔이나 베트남 유가족의 아픔이나 똑같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사랑에도 국경이 없듯이 아픔에도 국경은 없습니다. 4.16 인권선언에 담겨진 내용들에도 국적, 성적지향, 피부색 등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4. 4.16인권선언이 마치 노래가사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따라 읽을 수 있게 쉬운 언어로 제정되길 바란다고

적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권선언을 제정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보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게 노래가사처럼 인권선언을 만들라고 하다니 예전의 나에게 잠시 화가 났습니다. 노래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도 사실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떻게 작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냥 스크롤을 쪽 내릴수도 있고 그러다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멈춰서 천천히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인권선언도 비슷합니다. 2016년 4.16인권선언을 제정하고 나서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수많은 휴면파일 중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꺼내서 보고 다시 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적인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체같은 인권선언이라니 또다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좀 더 예를 들자면 4.16 인권선언 이주민버전, 청소년 버전, 장애인버전 등 다양한 버전을 각 단체나 구성원들이 만들어보는 것을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이주노조를 예를 들자면 4.16 인권선언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교육하고 토론하고 대략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5. 최근 이주노조에서 농성 투쟁하는데 인권선언 추진단들에게 소개해주시고,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와 세월호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어떤 걸로 고민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오늘로써 19일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지로3가 1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가 2005년 설립되자마자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어서 10년동안 대법원까지 가면서 노동청과 행정소송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딱하니 이주노조 손을 들어줬는데 패소한 노동청이 노조규약을 빌미로 노조필증을 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온갖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번주 문화제때 11살 초등학생 동지가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사람도 밥먹고 이주노동자도 밥먹고 한국사람도 화장실 가고 이주노동자도 화장실 가는데 한국사람이 노동조합 할수 있으면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 할 수 있는건 아니냐고 하더군요. 초등학생 동지도 아는 이 논리를 한국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많은 이주노동자들도 공장에서,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중에 이주민들도 있었고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여러 나라의 이주민들이 추모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이주민의 날을 맞아서 광화문에서 이주민이 바라보는 세월호 이야기라는 주제로 라디오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날을 각자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눈물바다가 될정도로 말을 잇지 못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슬픔 역시 국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단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모색중입니다.

6. 마지막으로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갈 추진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저런 이유로 전체회의도 잘 가지 못하고 바쁜척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제안해서 내뱉은 말은 지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 승리하고 4.16인권선언에 이주노조도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웹진 5호] 추진단 인터뷰 12. 땡땡책협동조합 손희정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Aug 17, 2015



1.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본인을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고요, 영화학을 전공해서 작년에 박사
를 끝내고 계속 시간강사를 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공부한 것을 가지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겠
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발기인부터 해서 땡땡책협동조합을 만들고 책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조
직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활동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건으로 침몰한 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계기로 만들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모든 국민이 세월호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당사자인가?”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걸 대할 수 있는가가 제일 큰 고민이고, 그 고민 안에서 4.16인
권선언 성안팀 활동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선언 외에 세월호 관련해서 한 활동이 있었나요?

인권선언 말고는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가끔 앉아 있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들을 했어요. 땡땡책협동조합원으로서 했던 것은 문화연대에서 한 기억하는 행동? 정확
하게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매주 토요일 4시 16분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 책을 읽는 모임을 문화연대를 중심
으로 하고 있어요. 조합원 중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꾸준하게 나가지는 못했지만 몇 번 나가서 같이

책을 읽고, 매주 책에 어떤 구절을 뽑아서 읽고 나누고 이걸 왜 세월호 광장에 와서 나누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광장공포가 있어서 사람 많은데 못 나가고 어떤 사건들이 터져도 몸을 움직이는 편이 아니거든요. 입이랑 머리랑 손가락을 움직이는 편이지. 그런데 그 때 몇 회 나가는 행사를 했어요. 실제로 내 몸이 놓일 자리를 바꾸는 사건이구나,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3. 추진단에 함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04회의 풀뿌리 토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야기하거나 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불같은 계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거나 광장으로 뛰쳐나오거나 이런 단발적인 일들로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태도라든지, "저게 뭐가 되겠어?"라는 태도라기보다는 저런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편 그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이 담론을 만지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층이면서 함께 가야하는 것이니까 각자의 몫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보를 하거나 광장에 모이거나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월호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광장에 나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추진단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중요한 이유는, 세월호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덜 하는 사람들과 304회에 걸쳐 면면이 만나고 다닌다는 것, 어떤 사건을 팡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과정이 사회를 바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4.16인권선언을 쓰기 위해서 토론을 한다는 과정 자체가 시간을 들이고 무엇보다 정성을 들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인권선언을 쓰고 있는 작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냥 인권선언을 같이 쓰자는 제안이 왔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언문을 써서 발표하는 것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언문을 쓰는 과정이 이렇게 여러 번의 토론을 조직해서 그것들을 모아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선언문이 안 써져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4. 풀뿌리 토론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참가한 토론이 추진단 워크샵과 서대문416네트워크 토론이었어요. 이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이나 세계관이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인 토론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언어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아는 사람들과의 토론이라서 제가 배울게 많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지만,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서로 생각이 섞이고 어느 다른 지점으로 가고 있다기보다, 이미 우리는 어느 지점에 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전혀 아니고 토론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서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제가 304회 풀뿌리 토론을 상상했을 때는 세계관을 바꿔내는 작업이 컸던거죠. 그래서 그런 재난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 국가주의, 발전주의라는 우리한테 일상화 되어있는 세계관을 뒤집어서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써 인권선언이 힘을 가진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의미가 클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풀뿌리토론에서는 저와 이미 비슷한 자리에 와있는 분들이 많구나, 내가 훨씬 배울게 많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늘 가르치니까 어딜 가도 알려줘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풀뿌리 토론에 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지난번 서대문 토론에 갔을 때 강의를 했는데, 내가 지금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고 이분들에 비해서 고민이 얕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강의하느라 힘들었고, 실제로 강의 끝나고 토론 시작했을 때도 재차 확인했던 것 같아요. 고민이 훨씬 깊은 분들이 와있구나. 그런 우리를 서로 확인하는 것도 토론의 의미라는 생각을 그 때 했고, 서대문 토론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냥 토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실천을 할 건지 그 자리에서 또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일정까지 정하는 거였어요. 진짜 곳곳에서 촘촘하게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세월호는 끝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5. 인권선언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최근까지 선언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림은 없었어요. 안 나와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과정에 충실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권운동이 아니라 여성영화제 같은 데에서 문화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성격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화를 통한 여성주의 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영화를 소개

하고, 극장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거죠. 우리는 영화를 보여줬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인거죠.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거나 삶의 변화를 얻거나, 관객의 몫으로 남은 운동을 해왔어요. 인권선언도 안 나와도 그만이고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명백하게 304회의 토론을 통한 결과물이 선언문으로 나오고 이 선언문이 앞으로 이런 재난이나 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되는 문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선동하는 선언문이었으면 좋겠고, 분노하게끔 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부조리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가진 선언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풀뿌리 토론이 전부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 올라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의 결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도발적이면서 선동적인 선언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6. 앞으로 풀뿌리 토론을 할 추진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추진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몇 번 토론에 가보기도 했고 토론결과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흡사하고 그나마 제일 참신한 게 '박근혜에게 수첩을 뺏을 권리' 같은 것인데, 그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상상력을 펼쳐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참가자들도 그렇고 "신자유주의가 문제야, 자본주의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배가 가라앉은 것에는 신자유주의적 작용이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토론 안에서 나오면 제일 근사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인데, 앞에서 강의를 해버리면 제가 가진 생각과 제가 뱉어낸 말이 토론에 스며들거든요. 마이크의 영향력이 그런 것이라고 고민을 했어요. 워크샵도 했고, 토론의 가이드도 있기 때문에 토론이 진행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권리에 대한 상상력을 좁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것이 올라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토론에 오시는 분들의 틀을 깨는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토론을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주 다른 선언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어느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포착할 수 있으면 풀뿌리 토론부터 시작해서 선언문이 나오는 과정 안에 제일 빛나는 순간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운동에도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보고 있어요.

[웹진 5호] 추진단 인터뷰 13.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 모임 '매듭' 권하늬님

by 인권선언416 posted Aug 17, 2015



1. 본인과 모임에 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권하나라고 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 모임 매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매듭'은 총학생회 주관의 모임이에요. 이번 총학생회에서 세월호 관련한 활동들을 하는 연대사업국이라는 국이 있어요. 그 국에서 올해 만든 단체예요. 제가 작년에는 교내에 이런 흐름이 있는 걸 잘 몰랐어요.

저는 세월호 참사를 부모님께 처음 들었어요. 시험기간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로 전화가 오셔서 엄청 우시고, 리본 프로필 사진도 하시고, 엄마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막상 전 참사 직후엔 아무것도 못 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무서움이 정말 컸던 게, 내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가치들이라든지 신념같은 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직면하는데 너무 무기력했었죠. 개인적으로 리본 달고 프로필 사진 하는 거 말고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올해 '매듭'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힘들었어요. 가서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찾아보고 읽어보고 어떻게 되가고 있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히', 이런 생각도 자꾸 들구요. 활동하면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 마음이 정리 안된 상태에서 매듭 활동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어떤 가치를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모임에 들어갔어요.

'매듭'이 처음 꾸려졌을 때는 50여명 정도가 있었고 지금은 재정비해서 30명 정도로 추려졌어요. 학내에서 1주기 맞아서 부스 행사나 분향소, 리본나눔 등을 하고 6월 말에는 유가족 간담회도 했어요. 안산 기억걷기 기획도 했었구요. 지금 기획하는 건 9월에 연고전이 있는데 그때 부스 사업을 하려고 하구요, 고려대 학생들과 안산도 보순레도 준비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어요.

2. 요즘 대학생들은 세월호 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작년에는 모두가 얼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친구들과 세월호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다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상태였어요. 저도 작년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페이스북에 멍멍하다는 이야기를 올렸었어요. 근데 다들 반응이 그런 식이었어요. 충격, 슬픔 등. 끔찍한 일이라는 걸 다들 실감했었어요. 그래서 새내기들에게는 오히려 다가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세월호 집회 나가는 것도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나가는 방식이었고, 학내에서 처음 세월호 운동이 있었던 건 작년 10~11월에 유가족 간담회를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1주기를 맞이하면서 활발해졌어요. 1주기 맞이하면서 세월호 투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심 갖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1주기 때 총학생회가 모았던 도보행진에 100명이 넘게 모였었거든요. 4월 철야집회 할 때까지 학생들이 집회도 정말 많이 나갔었구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뭐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친한 친구 중에 안산에 사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1주기 되어서야 처음으로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오히려 피해다니고, 혼자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당연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전 그때의 대학생들과 지금의 대학생들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을 특별한 계층으로 명명했었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또다른 약자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행동하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3. 세월호 투쟁을 하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요?

전 1년동안 세월호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회복지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국가가 뭔지, 사람은 뭔지, 권력은 뭔지. 지금 구조 속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잖아요. 도대체 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투쟁을 하면서 '연대'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되게 어려운 단어였어요. 그리고 왜 연대를 해야한다고 했을 때, 전 도덕적인 입장에서 힘든 사람들이니까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연대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약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봐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투쟁이 혼자 뭣으로 남겨졌을 때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100% 서로 동감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연대가 너무나 절실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개인으로 흩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요. 약자들끼리 힘을 합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목소리를 함께 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보니 세월호 참사가 특 터진 사고가 아니었던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각했던거고,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뭔가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믿는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될까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시간이었어요.

4. 인권선언 운동은 어떻게 함께하게 됐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왠지 모르겠지만 인권선언 운동을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희망적이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슬픔을 겪고 가장 힘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겠다, 인권의 문제라고 하면서 짊어지고 나오신 것 같고, 그걸 선언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엄청난 시도가 될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월호 관련해서 활동할 때 희망 차거나 기대한 건 거의 없었거든요. 해야하니까, 해야만 하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참여해야지 했는데 오히려 인권선언단은 너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정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추진단 전체회의 참여하면서 스스로에게 힘이 많이 됐어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사람들 앞에서 4.16 얘기하기가 스스로가 확신이 없다보니까 얘기 안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풀뿌리토론은 제가 하면 제일 가까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친구들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과에 가서 해보고 싶었어요. 인권선언 추진단이 갖고 있는 목표를 주변 사람들도 널리 알렸으면 좋겠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과 안에서 할 예정이에요.

인권선언문에는 우리가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한 권리들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고 문장으로만 남겨져있는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뻥하게 우리는 무슨 권리가 있다고만 말해주는 게 아니구요. 사람들에게 좀 충격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TAG • #웹진, #추진단인터뷰

[웹진5호] 4.16 인권선언 운동 활동일지(8월-1)

by 인권선언416 posted Aug 17, 2015

웹진 5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권선언활동일지 (8월 1~2주)

- ★ 2015. 7. 28 조직팀 회의
 - 추진단운영 및 소통계획 논의
 - 풀뿌리토론 참여자용 자료집 및 강좌 기획
 - 자료집 및 강좌 구상 계획

- ★ 2015.7.28. 추진단 김광민님(노란책갈피 모임) 풀뿌리 토론(4명, 서울대)

- ★ 2015. 8. 4 점검회의(416연대)
 - 풀뿌리토론 촉진 위한 강좌 기획 발제와 실무분담
 - 추진단 연락담당 분류
 - 홈페이지내 타임라인(디자인) 논의
 - 소책자 제작을 위한 기획안 발제

- ★ 2015. 8. 4 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모임(세기강양)의 풀뿌리 토론

- ★ 2015. 8. 5 토론지원팀회의(6명, 인권운동사랑방)
 - 풀뿌리 토론 지원을 위한 팀원 의견 공유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기획/기획안 발제
 - 소책자 '진행경과' 부분 논의

- ★ 2015. 8. 8 엄마의 노란손수건 풀뿌리 토론(20명, 민주노총)
 - 할 수 있는 실천 다짐 카드 제작 등


- ★ 2015. 8. 8 추진단 유현미님의 풀뿌리 토론(7명, 홍대 북카페 정글북)

- ★ 2015. 8. 8 박래군 석방촉구 문화제(광화문)

- ★ 2015. 8. 13 수원지역 풀뿌리 토론(7명, 다산인권센터)
 - 수원지역 다양한 단체 및 조직들에게 간담회 제안하고 촉진자로서 함께하기로 함
 - 풀뿌리 토론 진행

★ 2015. 8.14 실행팀 회의

- 소책자 기획
- 강좌 기획
- 풀뿌리토론 지원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기획
- 웹진 5~6호 기획 등
- 4.16연대 인권선언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 기타

 #웹진, #활동일지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미류



지난 7월 11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단 전체회의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을 포함해,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토론의 취지에 공감하는 추진위원들이 전국에서 200여 명 모였다. 추진단에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고 싶어 참여한 시민들도 많았다. 200여 명이 원탁에 나뉘 앉아 벌이는 토론은 그 광경만으로도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세월호 참사로 무너져내린 사회와 침몰해버린 인간의 존엄을 함께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은 무너지지도 침몰하지도 않았고 어디에선가 함께 할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체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전국 곳곳에서 펼칠 풀뿌리토론의 기본 프로그램을 추진위원들이 직접 시작해보는 시간이었고, 2부는 앞으로 인권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고 다양한 고민들이 제출되었다. 그 중 하나는, 4.16인권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인양이나 진상규명과 같은 과제들을 접거나 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조금은 당혹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제 인권할 시간"이라는 전체회의의 웹포스터의 제목을 놓고 "지금이 인권할 때냐"는 항의가 이미 있었던 터다. 인양이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같은 과제들이 모두 인권을 근거로 주장되는 것이고, 인권선언운동은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유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은 그리 직관적으로 가닿지 않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좌)200여 명의 참여자들이 모임을 나누어 풀뿌리토론을 진행하였다.
 (우)참여자들이 다함께 인권선언 추진을 다짐하는 글을 낭독하였다.

죽게 내버려둔 것은 범죄가 아닌가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건 앞에서 '생명에 대한 권리'라는 말이 무색하기도 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인권침해 사건으로 잘 여겨지지 않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 듯하다. 죽임과 죽음 사이의 차이가 그것이다. 국가범죄는 인권에 대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5.18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사건을 국가범죄로 인식하고, 심각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바라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음' 또는 '구조하지 못함'이라는 부작위는 인권의 침해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국가의 '무능'으로만 설명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무능을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인 침묵이나 방치와 같은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누구도 이와 같은 의혹을 기각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음모가 없었다면 우리가 목격한 무능은 죄가 없는 것인가?

2014년 4월 15일 세월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목적지에 닿기 전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운항을 맡고 있던 선장이나 선원들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탑승객들끼리 불안을 겪어야 했다. 한 학생이 구조 구난 요청을 했으나 위도와 경도를 말하라는 요구만 받았을 뿐이다. 해상 안전을 관리하는 관제센터 역시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다. 침몰 사고 발생이 분명해지고 해경이 구조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도 착한 경비정은 탑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선장과 선원들만 신고 세월호를 버렸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 현장에서 탑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만 받았으며, 구조의 책임이 있는 해경조차도 탑승객들을 죽게 내버려두었다. 탈출해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손끝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생사의 현장이었다.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든 근대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을 지켜낼 책임이 있다. 재난대응체계를 수립하고 구조 인력과 장비를 마련하고 구조 구난 훈련을 실시하는 등은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구조를 지원하겠다는 중앙119, 미군, 해군 등의 조력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재난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난구조업무 민간에 위탁시키고(2012) 연안 구조 장비 예산을 절감하고 재난구조 인프라나 구조 전담인력 확보에는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국가는 체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무능을 만들어왔다.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무능이라면, 그것은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국가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

정부는 해경123정장을 책임자로 법정에 세웠다. 해경123정장은 과실치사상죄로 감옥에 간했다.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충돌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만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점"을 들어 약한 형을 선고했다.(2015.7.14) 그러나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았던 목포해양경찰서장, 서해지방경찰청장은 법정에 서지도 않았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제대로 된 보고도, 지지도 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국가안보실장을 그만두었던 김장수는 주중대사의 자리를 얻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 해경123정장에게만 묻기 어렵다며 책임을 분산시켰으나, 책임은 사라져버렸을 뿐이다.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내지 못했고, 여전히 시신조차 찾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다. 죽어버린 생명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우리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구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다. 죽게 내버려둔 것이 의지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우연의 연속이었다라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다. 수백 명을 태운 여객선이 육지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선장과 해경123정장의 퇴선 명령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를 만들고 운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드물지 않은 여객선 침몰 사고가 국가적 참사가 되도록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림자처럼 흔적을 남기며 등

장했던 국정원은 어디쯤에서 어떻게 연관된 것인지, 밝혀야 할 질문들은 모두 무시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루고,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 중인 인양도 마찬가지다. 세월호로부터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가 나온 이후 세월호 탑승객들의 운명은 국가 책임 아래 있었다. 해난사고의 구조 임무가 국가에 있으므로 구조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수습하지 못한 것 역시 국가 책임의 연장선에 있다. 이미 죽었더라도 바닷속에 갇힌 미수습자들에게는 가족을 만날 권리가 있다. 그/녀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이기도 하다. 죽음을 확인할 기회조차 빼앗아버린 정부는 하루하루 길어지는 미수습의 시간만큼 자신의 책임이 커지는 것을 깨닫고 먼저 서둘러야 했던 것이다.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사망한 사건의 연장선에 미수습 상태가 있다. 수습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이것까지 다뤄야 한다.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색 작전 중이라는 왜곡보도만 내보낸 채 충분히 수색하지 못했는지도 말이다.

참사 당시에도, 참사 이전부터, 그리고 참사 이후로도 정부는 무권리의 상태를 음모하고 있다.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미수습자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아직 온전하게 기억되고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들, 아직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와 지속되는 고통, 아직 기약되지 않은 안전... 참사는 끝나지 못하고 이어진다. 이 모든 상황이 아직 우리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피해자의 권리와,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우리의 권리 등 인권의 목록이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

현명한 질문에 대한 어리석은 대답

그러나 "지금 인권할 때냐"는 항의 또는 의문에는 현명한 감각이 깃들어 있음을 안다. 이미 헌법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명시하고, 유수의 국제인권법들이 인권을 선언하고 권고한다고 인권이 실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굳이 인권으로 싸울 이유는 없다. 인양에 대한 권리든, 진실에 대한 권리든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싸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양을 요구하면서 미수습자의 권리를 말하지 않아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진실에 대한 권리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싸울 수 있으며 싸워야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그치지 않고, 책임과 무관한 금전적 보상으로 참사를 서둘러 지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한데 '인권'하며 앉아있을 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빼앗기는 중에도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모두 끝나버린 후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실도 정의도 배상도 피해자의 권리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목살하거나 거래하려 드는 정부가 가장 반길 말이 "인권은 나중"이라는 말이 아닐까? 국가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찬탈하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권리를 유보하며 무권리 상태를 존속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제서야 그게 권리라는 걸 알았다"고, 빼앗기고 나서야 절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경험을 마음과 머리로라도 먼저 끄덕이며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인권의 선언이 인권의 실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리들을 가진 주체이며, 그 권리들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주권자들임을 밝히는 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숙제들에 대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대답이다.

덧붙임	미류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관련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혐오로 표현할 수 없다•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관련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6연대